



겨울이면 더 신경 써야 할 자동차 배터리

멀쩡하던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배터리이다.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시동을 걸 수 없다. 특히 겨울철에는 자동차 배터리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기온이 낮으면 배터리 방전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배터리 방전은 차량 내외 전등을 끄지 않고 방치,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치 및 옵션을 많이 추가하고 사용, 기온이 낮은 곳에서 차를 오래 방치,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 상태로 유지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다면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일 쉬운 방법은 배터리 인디케이터 표시등이 있는 배터리라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디케이터가 초록색이라면 정상적으로 배터리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은색이라면 충전이 필요하고, 하얀색 등이 들어와 있다면 배터리 점검이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

또 평소와 다른 자동차의 반응이 다른 것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자동차의 시동 걸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작다면 배터리의 잔량이 줄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평소보다 흐르게 느껴진다면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배터리 더 오래 사용하려면?



-배터리 단자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

배터리 단자에 위치한 (+)극과 (-)극에서 발생하는 황산 가스로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경우 접촉 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시동을 끄기 5분 전 난방장치를 끄기

전기를 사용하던 상태로 시동을 끄면 배터리가 충전이 완전히 되지 않고 배터리 수명에도 좋지 않다.

-장기간 주차에도 차량 관리 필수

장기 주차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하면 방전이 될 수 있어 1주일에 1회씩은 10분 내외로 공회전을 시켜준다. 또한 블랙박스는 '방전 방지 기능'을 활용해서 블랙박스도 인한 방전을 예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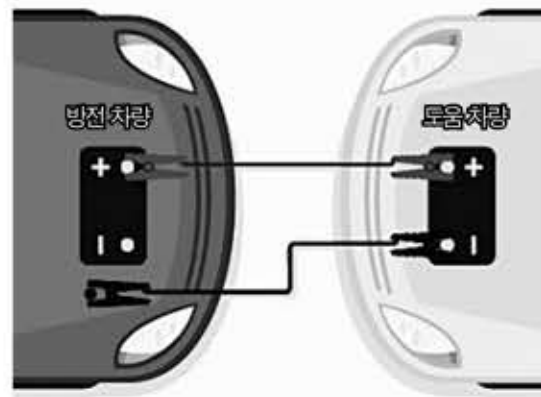
- 겨울엔 배터리 온도 관리가 필요

주차는 야외보다는 실내에 하는 것이 좋다. 배터리 내 전해액이 얼어버리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하게 추운 날엔 배터리 단자 주위에 모포 등으로 감싸주어 배터리 내부 전해액을 얼지 않게 조치해줘야 한다.

■ 자동차 배터리 점프 방법

배터리 점프 케이블, 도와줄 차량이 있다면 다음의 순서대로 방전된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1. 방전된 차량과 도움을 줄 차량의 시동을 모두 끄고 보닛을 연다.
2. 빨간색 점프케이블을 먼저 방전 차량의 (+)극에 연결한다.
3. 남은 한쪽은 도움 차량의 (+)극에 연결한다.
4. 검은색 점프케이블을 도움 차량의 (-)극에 연결한다.



5. 남은 한쪽을 방전 차량의 차체 등 금속 부분에 연결한다.
6. 도움 차량의 시동을 먼저 켜고 대기한다.
7. 방전 차량도 시동을 걸고 5~10분 정도 걸어 충전한 뒤 모든 차량의 시동을 끈다.
8. 점프케이블은 5-4-3-2 순으로 모두 제거한다
9. 방전 차량에 시동이 잘 걸리는지 확인한다

배터리 점프는 배터리 방전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이다. 배터리 점프를 통해 방전된 차량의 시동이 걸렸다면 정비소 등을 찾아가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배터리는 약 2-3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사진/그래픽=shutterstock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포토그래피 갤러리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